



‘화훼산업 1번지’ 강진군 악재 딛고 미래 꽃피운다

**불황·김영란법 직격탄 극복
첨단온실·ICT 융복합시설 등
예산 집중 지원 경쟁력 높여**

강진군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꽃 소비 위축 등 각종 악재를 딛고 ‘화훼산업 1번지’의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전국 화훼농가의 희망이 되고 있다. 강진군은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지역내 장미와 수국 재배면적은 장미 13ha, 수국 5ha로 전남에서 가장 재배량이 많다. 특히 수국의 경우 전국 생산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강진군이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최고 화훼생산단지 육성’을 목표로 지원사업과 예산을 꾸준히 늘려 고품질 화훼생산에 주력한 결과물이다. 전남지역 장미 생산량의 49%를 점유하고 있는 강진군 칠량면 장미재배단지 는 요즘 졸업 시즌과 봄 소비기를 앞두고 장미 생산 출하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평심화훼농법인은 지난 1994년 3농가 0.7ha를 시작으로 재배규모가 꾸준히 확대돼 현재 34농가, 13ha에서 연간 4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강진 화훼농가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꽃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최근 장미 출하가격이 1송당 평균 6000~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낮



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칠량면 평심화훼영농조합법인 정기총회 현장을 방문해 화훼농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만,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강진은 다른지역 주산지보다 높은 기온과 풍부한 일조량 등을 바탕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보광시설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20여년의 재배기술 노하우가 어우러진 고품질 장미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강진에서 재배되는 수국은 17농가에서 5ha를 재배해 연간 1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 수국 생산량의 33%, 전남에서는 생산량 61%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국내 일본 수출 물량의 88%를 점유하고 있는 강진산 수국은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고 있으며, 재배 면적은 크지 않지만 전국 제일의 수국 생산지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새 소득원인 꽃잎이 소재

류도 전남의 90% 이상이 강진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모란·작약 절화는 전국 최고 규모인 5.5ha가 조성돼 있다.

강진군은 올해도 전국 최고 화훼단지 육성을 목표로 15억원을 투입해 첨단온실, ICT 융복합시설 등 시설보완과 함께 화훼시장 소비 위축에 따른 대응책으로 일장에서 꽃 생활화와 ‘2017 강진방문의 해’와 연계한 군민 꽃 소비촉진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은 온화한 기후 조건으로 화훼재배의 최적지로 꼽힌다”면서 “앞으로 전국 최고 규모의 화훼 단지를 조성하고, 군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화훼시장 변화에 따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배 농가들도 고품질 꽃 생산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나주시, 다시·봉추 등 4개 지역 들노래 향토문화유산 지정

나주시는 “지역 주민들이 전승해 온 다시, 동강봉추, 봉황내촌, 노안학산 등 4개 지역 들노래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나주시는 ‘나주 들노래보존사업’을 통해 매년 들노래 전승을 지원하고 있다.

나주는 드넓은 평야와 비옥한 토질 덕분에 농경문화가 발달하면서 농부의 지친 삶과 힘든 노동을 이겨내는 민속문화도 활발한 곳으로, 대표적 노동요인 들노래는 남도의 가락에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민속문화의 원형으로 주목 받고 있다.

‘다시들노래’는 1972년 셋맞나이 중

요무형문화재 김매에 보유자가 살았던 청림마을에서 민속학자인 고 지춘상 박사가 발견했으며, 남도 농요중에서도 바탕가락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또 동강면 옥정리 ‘봉추들노래’는 영산강 하류의 들노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남도문화재단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봉황면 오리리 ‘내촌들노래’는 나주 들노래 중 유일하게 영산강변에서 떨어진 구룡지역의 농사 풍습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능보유자 조병래 선생이 타계한 이후 맥이 끊기는 듯 했으나 지난

2012년 나주문화원과 조영만 노인회장이 합심해 복원했다.

이와 함께 노안면 학산리 ‘학산들노래’는 나주평야의 찢줄 영산강변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다른 들노래와 달리 모찌는 소리가 없는 대신 맞두레질 소리가 있고, 상사소리, 김매는 소리, 사거리소리, 세화자소리, 진소리, 긴 들레기소리, 짚은 들레기소리, 풍정소리가 전승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고된 농사일을 달래는 선조의 지혜이자 농민의 애환이 담긴 나주지역 들노래가 이번 향토문화유산 지정으로 보존 전승에 힘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공공근로 90명·지역공동체 일자리 35명 모집

나주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나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4억30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저소득층 실업자 125명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업을 신청 받아 DB 구축, 서비스지원, 환경 정화, 기타사업 등 4개 분야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지역공간 개선형 3개 사업을 추진해 공공일자리 만들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은 일자

리 창출과 취약계층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3~6월 까지 4개월간 시행된다.

공공근로사업의 정보화추진 및 서비스 지원사업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8~39세 청년구직자 14명을 2월6일까지 우선 접수 후 선발할 계획이다.

또 일반 공공부분 일자리사업 참여희망자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참여 대상자는 만18세 나주 시민으로 이상 근로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이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제껏 나주시 일자리정책실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과 실직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생계에 도움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알선과 구인기업에 맞는 잠재직사업도 주력해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신속하게 찾아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일자리정책실(061-339-8314)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나주시의회 의원들, AI 방역초소 위문 격려



김판관 나주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방지를 위해 금천, 왕곡, 공산, 남평 등 4개소에 설치 운영중인 방역초소를 방문해 초소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격려했다.

김판관 의원은 “아간 근무 등으로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AI방역 최일선에 위치해 있는 만큼 방역근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서충열기자 scy@

나주시, 귀농·귀촌인 영농교육 연중 운영

나주시는 “신규농업인(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단기과정인 품목별 영농기초 기술교육, 도시민 농촌체험 현장교육, 농촌지역 적응 후속교육과 장기과정인 귀농창업학교, 신규농업인 현장체험 실습교육 과정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월부터 11월까지 10개과정 340

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특히 귀농창업학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 본인 희망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과정이 개설된다.

품목별 영농기초교육은 4개 과정(특용작물반, 발작물반, 시설재배반, 축산반) 160명(품목별 3일간), 도시민 농촌체험 현장교육과정은 3기 90명(2일), 농

촌지역적응과정은 1기 40명(2일), 귀농창업학교는 1기 40명(매주 화요일 18회),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지역선도 농업인 농장에서 5개월간(20시간/월) 실습으로 운영된다.

교육신청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및 나주시귀농귀촌지원센터(www.귀농귀촌나주.kr)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 기타사항은 농촌진흥과(061-339-7814)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강진군 지방세 징수 평가 전남 지자체 중 1위

강진군은 “전남도가 주관한 2016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책평가에서 97.09%의 지방세 징수율을 기록해 도내 지자체 중 1위에 올랐다”고 8일 밝혔다. 강진군은 우수군 선정에 따라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강진군은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말까지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읍면 합동 징수대책반을 편성해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하는 등 체납액을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특히 고액 고질체납자는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고질 체납차량은 자동차 등

록번호와 영치번호 상시 운영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했다. 또 상·하반기 3개 기관 합동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했다. 강진군은 또 경기침체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는 총분한 상담과 납부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통해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는 다양한 징수 수단을 동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형회 1등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